전 매 광 장

김승호
세한대학교 초빙교수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

교육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미래형으로 개정하는 중에 있다.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1학년에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지향하는 인재상과 핵심역량, 교육목표 등에 대해 대규모 국민참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0만 1,214명이 참여했으며, 15개 문항에 대해 5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 인재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배려(22.4%)와 책임감(19.7%)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에 대해서는 인성교육(3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주요 신문들의 표제어는 '국민은 인성교육 강화를 가장 원한다', '인성교육 강화 목소리 높아', '강화해야 할 교육 영역은 인성교육이 1위' 등이었다.

미래 교육과정 인성교육 강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래의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학력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는 의견이 대세로 나타나 있다.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인해 격조 높은 인품 개발이나 도덕성 함양 교육이 약화되었다는 한국 교육의 특수성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강력 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고립된 생활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전남지역의 교직원 2,553명을 대상으로 2013년에 실시됐던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교직원들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교육의 1순위로 '인성함양'을 들었고, 다음으로 학력향상, 진로교육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 해석해 본다면, 지식교육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약화시켜서라도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대비시키려는 관점이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사이에도 상당히 많다. 심지어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사람에 대해 교육현실을 모르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중요하다.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주목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교육의 두 축은 지식과 인성교육이기 때문이다. 지식과 인성은 어느 한 부분을 약화시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없으며, 두 영역은 상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학교에서 학력향상은 불가능하고, 학력향상에 대한 교원들의 헌신 없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학생들은 공부를 직업으로 한다. 직업에 충실하고 성취감을 얻고 싶은 것은 어른이나 학생이나 동일하다. 모든 학생들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에 교사가 학습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평가해 전문적으로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들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배려심과 협동심을 기르고, 선생님들과 감사와 신뢰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상보적이라는 이론을 미국의 인성교육 연구 및 연수기관인 인성교육협회(CEP)에서는 '새로운 인성교육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종래의 인성교육은 착한(good) 학생들을 위주로 하면서 소수의 문제학생들을 특별지도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지만, 새로운 인성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현명한(smart)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이라고 했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학교가 종래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더 신경을 써서 모두를 자신의 잠재력만큼 키워 주려고 노력할 때 학교폭력도 줄고 인성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좋은 인성교육이란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좋은 인성은 과거 사회에서 중요했고, 미래의 교육에서도 중시해야 할 과제이다.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교육의 특성 상 지식교육에 비해 인성교육 비중이 약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인성교육 위주로 학교가 운영될 수는 없다.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이라는 두 축은 동시에 그리고 상보적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다.

에 세 이

김향남
수필가·문학박사

헤드라이트

시간은 벌써 자정을 넘어가 있고 사방은 고요했다. 왁자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홀로 빠져 나오기란 생각보다 쓸쓸한 일이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니. 나는 거의 참석을 못 하거나 한다고 해도 중간쯤에나 갔다가 끝나기도 전에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반이라도 걸쳐놓고 집으로 오는 길엔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어둠 속을 달려가는 그 틈새가 호젓하니 좋았다.

리조트 밖의 공기는 서늘했다. 어둠에 잠긴 바다 끝에 불빛이 가물거렸다. 바닷가를 따라 다듬어 놓은 산책로는 멀리까지 구부러져 돌아갔다. 나는 잠깐이라도 저 길을 좀 걸어볼까 하다 관두었다. 대신 이다음 어느 날,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 이곳에 와서 밤이 깊도록 슬카장 놀다 가리라 마음을 다독였다.

건너편 언덕배기에 높이 솟은 건축물이 보였다. 비상하는 새의 형상을 한 지붕이 어둠에 싸인 채 푸르스름한 빛을 뿜고 있었다. 아마도 최근 지어졌다는 국제 음악당일 것이다. 세계적인 규모라는 저 클래식 음악당은 예술의 도시를 꿈꾸며 일궈낸 이곳 사람들의 긍지이자 자부심일 것이다. 아름다운 해안, 천혜의 경관만 해도 이미 명소라 할진대 저토록 근사한 공간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니 금상첨화(錦上添花)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 나는 또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이다음 어느 날, 저 음악당 객석에 앉아 감미롭고도 우아한 시간을 한량없이 누려 보리라.

나는 사뿐사뿐 주차장으로 갔다. 어둑신한 주차장엔 차들이 빼곡했다. 이 많은 차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내 차는 또 어디쯤에 있는 건지. 나는 기우뚱기우뚱 두리번두리번 차를 찾아 헤맸다. 어둠 탓이기도 하고 내가 신은 하이힐 탓이기도 했지만, 문제는 발아래 깔린 자갈들이었다. 아무리 살금살금 걸어도 무사통과하기는 어려웠다. 우둘투둘한 바닥을 걸어 겨우 차에 탔다.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맞추었다. 지금부터 좀 세게 밟으면 두 시간 후쯤엔 집에 도착할 것이고 씻자마자 바로 누우면 서너 시간은 잘 수 있을 것이다. 헤드라이트를 켰다. 빛은 멀리까지 뻗어 나갔다. 순간 나는 멈칫했다. 불빛에 드러난 몇 개의 현수막이 뜬금없이 눈앞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강제수용 결사반대
-단결 투쟁

굵게 흘려 쓴 구호들이 허름한 집들 사이에 넝마처럼 걸려 있었다. 그것은 혈서처럼 붉고 맹서처럼 굳건해 보였다. 담벼락엔 '민박집'이라고 써놓은 글귀가 멀뚱하니 붙어 있고, 곧 헐려 나갈 듯 숨죽인 집들이 낮게 웅크리고 있었다. 검게 솟은 나무그림자가 지붕들을 덮고 그 틈새로 신음처럼 낮은 음조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나는 갑자기 머리가 띵했다. 이 아름다운 항구에 저토록 완강한 외침이라니. 내용이야 어찌 됐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난제가 펄럭이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밤의 적막 속에 문득 내 앞을 막아선 형국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전망 좋은 방에서의 즐거운 한때, 잘 닦인 바닷가를 걷거나 편안한 객석에 앉아 음악에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신음을 외면한 결과는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고 저 결기 넘치는 비장한 절규들이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쉽사리 자리를 뜨기도 어려웠다.

나는 한참이나 불빛에 비친 현수막과 낮은 지붕들, 그 위로 펼쳐진 푸른 날개를 눈으로 더듬었다. 그러다 퍼뜩 가속페달을 밟았다. 바퀴 아래서 자갈들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독 자 광 장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마음만은 '컨택트' 하자

곧 민족최대의 명절 '추석'이다. 그러나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직접 만남을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도 일부 방역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4차 대유행에 따른 감염우려 또한 여전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작년에 '언택트추석'을 보내면서 '설마 내년 추석에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 볼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었었는데 올해도 물 건너 간 것 같아 못내 아쉽다.

최근 직장인 1,705명에게 '추석 귀성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51.9%가 귀성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인들 중 절반이상이 귀성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추석선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오히려 늘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귀성'을 포기하는 대신 '추석선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려는 셈이다. 추석을 앞두고 주요 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이를 방증한다. 기왕에 추석선물을 준비한다면 국산 농축산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 농촌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폭우·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우리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농축산물 추석선물'이다. 특히 품질 좋은 국산 '농축산물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시름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사람들은 우리 농촌을 다시금 돌아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말이다.

올해 추석도 대면모임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농축산물 선물로 마음만큼은 서로 '컨택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사 설

광주 발전 '군공항 부지' 개발에 달려

내년 대선주자들의 공약사항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포함시키자는 게 광주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기존 이전 방식(기부 대 양여)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전남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렸다. 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신 군공항 건설지역에 항공산업 메카시티 조성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396만㎡ 면적(산업단지 198만㎡·배후단지 198만㎡)에 1조7,0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연계 계획에 전남지역의 반발이 거세 새로운 군공항 건설지 선정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고, 설령 특별법으로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뒤따른다 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 이전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인화성이 강한 군공항 이전을 놓고 지자체가 끊임없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다. 군공항이 이전되면 그 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할지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시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문화 등이 융합된 그린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경제적 자산과 관광자원이 부족한 광주는 풍요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 있다. 아파트로 둘러싸이는 도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군공항 부지 개발이다.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도심 공간으로, 도시 발전을 일거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국제수묵비엔날레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코로나 시대 온라인 전시문화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으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 1일 6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개막 14일 만에 관람객 7만6,000명을 돌파했다. 이 기간 관람객은 목포·진도 주전시관에 7,341명, 광양·광주 등 4개 특별전에 5,817명, 9개 시군 기념전에 4,574명 등 총 1만7,7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제수묵비엔날레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에는 현장 관람을 하지 못한 관람객 5만8,762명이 방문했다.

이는 당초 관람객 목표 30만명의 25%를 넘어선 규모이며, 전체 관람객 중 온라인 관람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에 달해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온라인 전시문화를 새롭게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관람이 많은 것은 목포문화예술회관(비엔날레 1관)의 사전예약제와 정부미술관 기준보다 강화한 관람 인원 제한 등 현장 관람보다는 온라인 관람을 유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15개 나라 200여명 작가가 참여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수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연계한 생활 속 수묵작품 등을 통해 수묵의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운림산방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수묵 부채·머그컵 만들기, 수묵 캘리그라피, 대형 협동화 그리기 등 가족들과 함께할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트페어와 수묵을 활용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통해 수묵의 가치와 매력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코로나19가 바꾼 명절 풍경

기자수첩

황애란
정치부 차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명절 풍경을 바꿨다. 가족과는 거리를 두고, 명절 인사는 비대면으로, 상차림은 간소화 된 모습이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귀성·귀경 전쟁은 옛말이 됐고, 시끌벅적하던 성묘와 차례상도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우애와 정을 나누고,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은 이젠 추억이 됐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을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으로 보고 '비대면 추석쇠기'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감염과 학교, 타지역발 감염 등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달 들어 일일 확진자는 지난 12일(1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40명대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사전에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꼭 받고, 어려울 경우에는 만남을 미루는 것이 부모님, 가족, 이웃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도 코로나19 특별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터미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중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대규모 신속 검사가 가능하도록 채취 긴급지원팀을 구성하고 선별진료소 비상인력 사전확보와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예방접종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방역당국에서 수 차례 밝힌 '방역수칙 준수'다.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실천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 집 부	(062) 720-1073
경 제 부	(062) 720-1066~67	논 설 실	(062) 720-1006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 산 실	(062) 720-1033
사 회 2 부	(062) 720-1043	월 간 국	(062) 720-10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 매 국	(062) 720-1004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업 국	(062) 720-1011,1099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 리 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3
• 사회부장 010-5601-2219
• FAX (062) 720-1080
•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FAX (062) 720-1020
•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